


6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01. '개척단' 조직과 운영
 - 부랑인 단속과 '개척단' 동원
 - 개간, 간척 노동
 - 감시와 구타
02. '개척단'의 합동 결혼
 - 합동 결혼 추진
 - 실제 결혼 생활과 그 이후
 - 구술 일화
03. '개척단'의 농지 분배와 이주/정착
 - 농지조성 현황
 - 장흥과 서산의 농지 분배 차이
 - 서산 정착민의 요구와 정부의 책임

04.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

- 서산 개척단의 해산
- 장흥의 농지 분배 후 떠난 사람들
- 정착한 사람들과 현재


05. 남북귀환 여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

- 남북귀환 여부란?
- 사건의 배경
- 연행
- 강제 심문
- 불법 구금, 고문 및 구타

06. 남북귀환 여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연좌제'

- 감시로 인한 일상의 파괴
- 지역에서의 고립
- 연좌제로 인한 자녀, 친척의 취업 및 해외이주 제한
- 가정(家長)의 피해와 그로 인한 빈곤
- 최근의 상황

6주차 | 1960~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3차시

'개척단'의 농지 분배와 이주/정착

6주차 | 학습목표

3차시. '개척단'의 농지 분배와 이주/정착



학습목차


학습목표

- 개척단이 농지를 어떻게 조성하여 분배되었는지 서산과 장흥을 비교할 수 있다.
- 개척단 노동의 의미와 농지 분배에서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개척단의 농지 조성 현황
- 서산과 장흥의 농지 분배 차이와 서산 농민들의 요구

6주차 | 학습목표



농지조성 현황

6주차 1960~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 3차시 '개척단'의 농지 분배와 이주/정착



농지조성 현황

구분	인원	개간 면적
부랑아 및 연정아	5,090명 (63%)	3,656정보(66.4%)
한센병 완치자	일반	1,840면 (22.7%) 773정보(14%)
	오마도	1,150명 (14.3%) 1,078정보(19.6%)
	계	2,990명 (37%) -
총	8,080명 (100%)	5,507정보=54.61km ² =165,210,000평

[출처01] 행정백서편찬위원회

6주차 1960~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 3차시 '개척단'의 농지 분배와 이주/정착



농지조성 현황

- 식량 증산
- 빈곤 극복

장흥과 서산의 농지 분배 차이



6주차 1960~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 3차시 '개척단'의 농지 분배와 이주/정착



장흥과 서산의 농지 분배 차이

	전남 장흥	충남 서산
시작 시기 및 주체	1959년 평양 출신 김형서	1952년 전매청이 공유수면 매립, 1960년 10월부터 북한 출신 피난민 개간
방식	공유수면(바다) 매립	폐염전(잡종지) 개간
작업자	피난민, 현지인, 자활단(개척단)	대한청소년개척단
운영 주체	한국정착사업개발협회(민간)	민정식(대표자), 보건사회부(정부)
농지 무상 분배	O	X

[출처01] 행정백서편찬위원회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서산 정착민의 요구와 정부의 책임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6주차 1960~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 3차시 '개척단'의 농지 분배와 이주/정착

서산 정착민의 요구와 정부의 책임



- 무상 토지 분배 요구
 - 개간 작업 대가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6주차 1960~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 3차시 '개척단'의 농지 분배와 이주/정착

서산 정착민의 요구와 정부의 책임

- 서산의 분배 문제
 - 정부가 무상대부하던 국유지를 가분배
 - 개인 불하(등기)가 되지 않음

[출처02] 국가기록원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6주차 1960~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 3차시 '개척단'의 농지 분배와 이주/정착

서산 정착민의 요구와 정부의 책임

- 무상 불하 요구 근거
 -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1968)
 - 제6조 (토지의 분배등) 사업시행으로 생긴 분배대상이 되는 토지 기타 권리는 전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와 공공필요에 의하여 유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구호의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무상분배할 수 있다.

[출처0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6주차 1960~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 3차시 '개척단'의 농지 분배와 이주/정착



서산 정착민의 요구와 정부의 책임

- 무상 불하 요구 근거
→ 시행령 미비로 법안 폐지

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조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정, 개정 구분
1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19호	1982. 12. 31.	폐지
2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1968. 7. 23.	법률	제2039호	1968. 8. 23.	제정

[출처0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6주차 1960~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 3차시 '개척단'의 농지 분배와 이주/정착



서산 정착민의 요구와 정부의 책임

- 정부의 매각 시도
 - 노동력을 인정 받지 못한 농민들의 소송
 - 농민의 패소

6주차 1960~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 3차시 '개척단'의 농지 분배와 이주/정착



서산 정착민의 요구와 정부의 책임

- 결과
 -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 “개량비 빼고 장기 분할 상환 권고”
 - 2012년 최장 20년 농민들이 유상 매수 계약(279명 중 179명)
 → 개척단의 노동 대가, 토지개량비를 미인정

6주차 1960~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 3차시 '개척단'의 농지 분배와 이주/정착



학습정리

- 개척단이 만든 농지와 그 분배 문제

6주차 1960~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 3차시 '개척단'의 농지 분배와 이주/정착



다음 차시에서는

- 개척단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SOURCES



[출처01] 행정백서편찬위원회, <행정백서>, 1962, 251쪽

[출처02]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searchTotalUp.do?selectSearch=1&upside_query=%EC%9E%90%EC%A1%B0%EA%B7%BC%EB%A1%9C+%EC%84%9C%EC%82%B0#ottom

[출처0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c.do?section=&menuld=1&subMenuId=17&tabMenuId=93&eventGubun=060101&query=%EC%9E%90%ED%99%9C%EC%A7%80%EB%8F%84>



기획·조정
이봉규·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